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표지

도쿄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제7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일본정부관광국상

Photo : KIM SANGHAK

통권 572호 계간지

발행일 2021년 6월

발행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디자인 상상디자인

Contents

일한 관련

03 일한 외교장관회담 / 일한미 외교장관회의

대사관 관련

04 추조 카즈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과 이시모토 준코 우송정보대학교 교수 좌담회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민간교류

특집

08 日本語で語るニッポン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이상준 회장 인터뷰 의인 이수현의 행동을 기억하고 꿈과 정신을 이어가고자

13 의인 이수현 20주기 기념 독후감 공모전 입상자 및 시상식 햇살이 된다는 것은 돌담에 속삭이는 1월의 햇발같이

일본 문화

18 일본의 박물관 미술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만나는 일본의 미술관 박물관 22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찾아서 애니메이션의 성지를 찾아, 귀멸의 칼날 26 집에서 손쉽게! 일본의 가정요리 알록달록 컬러풀한 색감을 살린 여름 채소 한 상 차림

일본 사정

28 조금 특별한 공간 미치노에키 아름다운 바다와 맛있는 우동, 가가와의 미치노에키 32 일본의 계절을 걷다 벚꽃이 만개한 소소한 시골 마을 풍경 속으로 36 트렌드 앤 트렌드 일본 시골 마을 특산품이 한국의 고급 레스토랑에 오기까지 시마바라 수연 소면

공보문화원 광장

41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42 일본문화원 리포트 세계 유일의 가게에 거장이 전하는 사랑과 공생 〈후지시로 세이지 : 빛과 그림자의 판타지 전〉 개최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44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Instagram
@j.munwhawon
<https://www.instagram.com/j.munwhawon>



YouTube
<https://www.youtube.com/user/JapanEmbKoreaPICC>



Facebook
@j.munwhawon
<https://www.facebook.com/j.munwhawon>



NaverBlog
<https://blog.naver.com/bunkain>

일한 외교장관회담

현지 시간으로 5월 5일 9시(일본 시간 5일 오후 5시)부터 20분간,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의 참석을 위해 영국에 체류 중이던 모테기(茂木) 외무대신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일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양 외상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지역 안정에 일한·일한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간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대신은 위안부 소송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현금화는 절대 피해야 한다며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모테기 대신은 ALPS 처리수와 관련해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가겠다고 말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대외 발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상의 각각에 대해 정 장관으로부터 한국 측 입장에 입각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양 외상은, 향후의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외교 당국 간에 의사 소통을 계속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일한미 외교장관회의

현지 시간 5월 5일(수) 오전 8시(일본 시간 5일(수) 오후 4시)부터 약 60분간, G7 외교장관회의의 참석을 위해 영국(런던)을 방문한 모테기 외무대신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및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일한미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개요는 아래와 같다.

첫머리에 블링컨 국무장관의 환영사 이후, 모테기 외무대신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특히 북한에 대한 대응에 일한미 3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에 이번 회의가 개최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블링컨 국무장관으로부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에 대해 모테기 대신은 (1)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은 점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의 안전 확보 방안 강화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2)정책 검토 프로세스에, 일본 측의 생각을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해 왔으며, 일한 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중시하면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코미트먼트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또,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따른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나아가 모테기 대신은 납치 문제와 관련해 블링컨 국무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지지를 얻어 냈다.

끝으로 세 장관은,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일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한미 외교 당국 간에 긴밀히 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일한미 외교장관 사이에도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Photo: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민간교류

외교관으로서 일본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키사케시(噺酒師)’ 자격증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추조 카즈오(中條一夫)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과 지난 2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음식 알리기 친선대사’로 임명된 이시모토 준코(石元淳子) 우송정보대학교 교수와의 좌담 내용을 소개한다.

추조 원장 본인 소개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모토 교수 원래 일본에서 전국 규모로 운영되는 학원에서 요리를 배웠는데 나중에는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와 제휴를 맺고 있던 당시 대전실업고등학교(현재의 우송대학교)에서 제과, 제빵을 가르쳐 달라는 의뢰가 와서 파견의 일원으로 ‘해외에 나갈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서 3개월 예정으로 왔다가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1년을 근무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되는 2004년 3월부터 학교 요청으로 새로 생긴 제빵, 제과 학과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외식조리 학부가 신설되어, 현재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부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 교직원인 제과, 제빵 3명, 일본어 전공 2명, 조리가 3명으로 그중 일본인은 4명입니다.

추조 원장 올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음식 알리기 친선대사’로 임명되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시모토 교수 학부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가서 일본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부에서 일본 요리나 일본 문화 관련 강의 요청이 있으면 일본의 식문화와 식사 예절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조 원장 일본 음식, 일본 문화, 일본어 등 주로 어떤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시모토 교수 예를 들어 일본의 명절음식인 셋쿠(節句) 요리나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두는 라면, 초밥, 튀김의 유래 그리고 일본에서 젓가락을 사용할 경우의 예절 등에 대해 영상을 보고 실제로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 체험 등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조 원장 일본과 한국 식문화의 차이점이나 유사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놀라던가요.

이시모토 교수 양국 식문화나 생활 양식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인데, 예를 들어 일본 아이들이 밥그릇을 들고, 한국 아이들이 밥그릇을 상 위에 두고 먹자, 양국 모두에서 예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서로가 제대로 된 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 위에 음식을 두고 먹던 문화와 다다미에 쟁반을 두고 먹던 문화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이런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점이라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지만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부분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추조 원장 양국 식문화의 특징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시모토 교수 일본은 제철 음식을 그리고 한국은 보존 음식을 중시하는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이는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온난하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제철 식재료를 구하기 쉽고, 한국은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 등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보존식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식문화의 차이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추조 원장 최근 한국에서 일본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좋은 평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시모토 교수 역시 많은 한국 분이 일본을 방문하신 것





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일식 등에서 오는 일본 음식은 이럴 것이라는 생각에서, 직접 드시면서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닐까요. 일본식 양식인 돈가스, 오므라이스, 함박스테이크 그리고 라면 등을 한국 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추조 원장 15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일본식 카레라이스 가게를 보면서, 전통적인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일본인의 식생활과 관련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시모토 교수 그렇습니다. 서로가 만나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일본 사람이나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나 KPOP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음식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직접 와서 먹어 보고 지금까지 먹은 것이 본고장 맛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민간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조 원장 일본 요리나 제빵, 제과를 포함해서 학생들이 배우려고 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시모토 교수 여러 번 가족 여행으로 일본에 가서 음식을 먹어 보고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학생과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고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학생으로 나뉩니다. 코로나 19가 아니라면 일본에 가서 일본 음식을 접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학생과 1년에 두 차례 여름과 겨울에 일본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된 요리대회 우승자를 데리고 시즈오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고추냉이(와사비) 받을 견학하고 고추냉이가 들어간 밥과 소바를 먹고 돌아가는 길에 항구에 들러 아침에 잡아 올린 생선을 손질해서 치라시즈시(チラシ寿司)도 만들고, 차 발도 견학하고 발이 저릴 정도로 다도를 배우면서 학생들에게 인상적인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추조 원장 일본에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많은데, 지금 같은 여름철에 맞는 일본 요리나 한국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시모토 교수 일본의 여름 음식하면 소면이 먼저 떠오르네요. 그리고 교토의 갯장어(하모, 鰻), 은어(아유, 鮎) 요리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일본 음식으로는 B급 구르메(B級グルメ)가 있는데 한국에서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규슈(九州)의 다고지루(だご汁)나 도호쿠(東北)의 이모니(芋煮) 등 지역 음식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이란 그 지역 재료로 만들어야 제맛을 낼 수 있는데, 홋카이도의 감자와 옥수수를 한국으로 가져와 요리해도 현지 맛을 내기는 어려우니까요. 앞으로 코로나 19 상황이 좋아지면 학생들에게 일본의 현지에서 지역 음식을 접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일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도 받아 'SAVOR JAPAN'



인증 지역에서 지방 문화나 향토 음식과의 만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조 원장 일본 음식의 매력을 한국인에게 알리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시모토 교수 일본에서는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식재료의 사용법과 이를 활용한 일본 요리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는 양하(생강과 채소)가 많이 재배되는데, 드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를 초밥이나 소면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한국에서 노란 유자는 자주 먹어도 파란 유자는 잘 쓰지 않는데, 이를 식재료로 활용한 일본 요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봄철이 되면 쇠뜨기(뽕밥나물) 같은 제철 식재료로 요리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일본 요리 등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의인 이수현의 행동을 기억하고 꿈과 정신을 이어가고자

1987년 설립된 이래 한국과 일본 민간교류 단체의 효시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 이수현 관련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KOJAC) 이상준 회장과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로 20주기를 맞아 진행된 이수현 20주기 기념사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에 이수현 님의 20주기를 맞이하여,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의인 이수현 20주기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에서는 문화교류 사업의 중요 행사 중 하나로서 한국 대학생과 부산 유학 중인 일본 대학생이 함께 진행하는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약칭 아이모)을 지속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부산 출신 의인 이수현 님께서 소망하던 한일 교류의 가교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되새기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가는

今回、李秀賢(イ・スヒョン)さんの20周忌を迎えて、社団法人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が「義人・李秀賢20周忌記念事業」を推進した背景や契機などがあれば、お話しください。

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では、文化交流事業の重要行事の一つとして、韓国の大学生と釜山に留学中の日本の大学生と一緒に「美しき青年李秀賢モイム(略称:アイモ)」を続けて実施してきました。釜山出身の義人・李秀賢さんが願っていた日韓交流の架け橋になりたいという意味をよく考え、人々の記憶から忘れられていく義人・李秀賢さんの存在を広めるために様々な事業を推進してきました。まず、義人・李秀賢さんの遺品展示会をはじめ、李秀賢さん写真展の開催、父・李盛大(イ・ソンデ)さんのプロ野球始球式、母校のネソン高校前に名譽道路名の「義人・李秀賢の道」を指定するための釜山市民

의인 이수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의인 이수현 유품 전시회를 비롯하여 이수현 사진전 개최, 아버님이신 이성대 님의 프로야구 시구 행사, 모교인 내성고등학교 앞에 명예 도로명인 ‘의인 이수현 길’을 지정하기 위한 부산 시민 캠페인 등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의인 이수현의 존재를 알려왔습니다.

올해 의인 이수현 님의 20주기를 맞아, 1월 기일에 맞춰 부산과 도쿄에서 추모식이 개최되었고, 평전 ‘이수현, 1월의 햇살’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의 공동주최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20주기 기념 추모음악회’, 그리고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함께 ‘의인 이수현 20주기 독후감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20주기를 맞이한 회장 님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의인 이수현 20주기를 맞이하여 2~3년 전부터 기념사업의 하나로 평전 출판을 기획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인 관련 기록물이 몇 권 발간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의인 이수현 관련 출판물이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평전 출판을 기획하고 나서 작가 선정부터 고민이 많았지만, 다행히 학창 시절 밴드 활동을 함께 한 장현정 씨가 출판 관련 및 작가 활동을 하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당초 기획 의도는 장현정 작가가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서 그분들의 기억과 기록을 더듬어가며 원고를 써 갈 예정이었지만 도중에 아버님께서 작고하시는 바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머님과 동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이상준 회장

キャンペーンなど、過去10年間、様々な事業を通じて義人・李秀賢さんの存在を広めてきました。

今年、義人・李秀賢さんの20周忌を迎え、1月の命日に合わせて釜山と東京で追悼式が開催され、評伝『李秀賢、1月の陽光』が出版されました。そして、5月には、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と国際交流基金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の共同主催で「美しき青年李秀賢20周忌記念追悼音楽会」、そして在釜山日本国総領事





생인 수진 씨, 고교 친구, 유학 중의 룸메이트, 아카몬카 이 관계자 등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출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부산에서 20주기 기념 한일 합동 추모식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수현 전시회'가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동래중학교 교정에 추모비 설치, 독후감 공모전 개최, 그리고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소장 가토 다케시)와 공동으로 주최했던 북 콘서트 및 추모 음악회까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20주기 기념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까 걱정도 많았지만, 다행스럽게 별 탈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의인의 모친인 신윤찬 여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행사를 할 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듯이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집니

館と共に「義人・李秀賢20周忌読書感想文コンテスト」が開催されました。20周忌を迎えた会長のご感想を聞かせて頂きたいです。

今年、義人・李秀賢さんの20周忌を迎えるにあたり、2～3年前から記念事業の一つとして評伝の出版を企画しました。日本では李秀賢さんについて扱った書籍が何冊か出版されましたが、韓国では関連の出版物がなく、残念に思っていました。評伝の出版を企画して作家の選定から様々悩みましたが、幸いにも学生時代にバンド活動を一緒にしていたチャン・ヒョンジョンさんが出版関連及び作家の活動をしているため、大きな問題なく解決しました。当初の企画意図は作家のチャン・ヒョンジョンさんが両親と家族に会い、彼らの記憶や記録を辿りながら原稿を書いていく予定でしたが、途中でお父さんが亡くなられたため、困難もありましたが、お母さんと妹のスジンさん、高校の友人、留学中のルームメイト、赤門会関係者などの協力により成功裏に出版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1月26日に釜山で20周忌記念「韓日合同追悼式」が雨の中で行われました。また、「李秀賢展示会」が釜山市庁展示室で行われ、トンレ中学校校庭に追悼碑設置、読書感想文コンテストの開催、そして 国際交流基金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加藤剛所長)と共同主催したブックコンサート及び追悼音楽会まで全てが順調に行われました。コロナ禍で20周忌記念行事が円滑に進められるのかという心配もありましたが、幸いにも行事が無事に行われることを見て、義人の母親である辛潤贊(シン・ユンチャン)さんの話が思い出されました。「お母さん！私はどうしてこんなに運がいいのか分からないよ。困難な状況にぶつかるたびに誰かが現われて助けてくれる。僕の周りに良い人がとても多いみたい」という話です。コロナ禍でしたが、行事を行うたびに誰かが助けてくれているかのように、全ての行事が順調に進んで本当に良かったと思いました。20周忌記念事業を終えた今は、まるで演劇の一幕を閉じたような気持ちです。今までは義人・李秀賢さんの追悼と義人の存在感を広め、記憶す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たのだとすれば、これからは義人の志や精神を継承していくべき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両国の架け橋になろうとした李秀賢さんの夢と志を

다. 20주기 기념사업을 마친 지금은 마치 연극의 한 막을 끝낸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인 이수현의 추모와 의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기억하는 데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의인의 뜻과 정신을 계승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양국의 가교가 되고자 했던 이수현 님의 꿈과 뜻을 어떤 형태로 이어 가고 싶으신지요?

글쎄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년이 된 지금까지는 의인의 추모를 위한 행사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까지 추모만 할 거냐?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20주기를 계기로 추모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의인 이수현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 가능한 행사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뿐만 아니라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그리고 한일 민간교류단체와 상의해서 양국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하는 의인 이수현의 행동을 기억하고 그의 꿈과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행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양국 간 왕래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은 한국과 일본만이 아닌 전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양국 상호 간의 왕래도 단절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교류 활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협회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どのような形でつないでいきたいのですか。

そうですね。本当に難しい質問です。先ほどもお話ししたように、20年が経った今までは義人を追悼するための行事や人々の記憶に留めようとする事業が多かったです。そのため「いつまで追悼ばかりするつもりなのか」という話も出ていました。そこで、協会でも、20周忌を機に追悼中心の行事から脱し、義人・李秀賢さんの精神を継承し、持続可能な行事へと転換することを考えています。当協会だけでなく、在釜山日本国総領事館、そして日韓民間交流団体と相談し、両国の青少年と市民が共に義人・李秀賢さんの行動を記憶し、彼の夢や精神を反映できる行事を考えています。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り両国間の往来が難しい中、韓国と日本の交流を続けるためにはどのような活動が必要だと思いますか。

前代未聞のコロナ禍は、韓国と日本だけでなく、全人類が経験している困難です。両国間の往来も途絶えた中で可能な交流活動は多くありません。当協会も他の団体と同じく、オンラインを通じた非対面交流を進めていますが、効果的な交流という観点からは非常に心残りです。交流においては、辞書的な意味よりも「会う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特に民間交流において、相互の出会いは暖かい心と情を交わすことであり、このような交流に慣れているため、今の状況はとても残念です。しかし、日本のことわざに「継続は力なり」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コロナ禍でも可能な方法を模索し、続けて交流する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そして、ポストコロナ時代に備えて今まで推進してきた交流事業を整理し、新しい方法を準備し



을 통한 비대면 교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교류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큼니다. 교류에서는 사전적 의미보다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 교류에서 상호 간의 만남이란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는 것으로, 이런 교류에 익숙하다 보니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일본 속담에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해서 끊임 없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그동안 추진하던 교류 사업을 정리,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여 상호 간에 소통하면서 앞으로도 교류의 끈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일본의 새소식’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다면.

일본의 새소식은 일본의 최근 상황과 문화, 여행, 먹거리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발간하는 일본 정보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계간지로 발행되고 있으며, 내용도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어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어 보는 편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한일 교류에 관심이 많아 양국의 복잡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민간 교류를 진행하는 게 조심스러울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폭넓고 다양한 문화 교류로 풀뿌리 교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새소식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http://www.kojac.or.kr/>



て相互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図りつつ、今後も交流を継続、発展させたいと思います。

「イルボネ・セソシク」読者の皆様にお送りするメッセージがあれば。

イルボネ・セソシクは日本の最近の状況や文化、旅行、食べ物に関する情報など、様々な内容を盛り込んで発行される日本の情報の宝庫だと思います。季刊誌として発行され、内容も充実しているので、時間をかけてしっかり読んでいます。読者の皆様も日韓交流に関心が高く、両国の複雑な状況を客観的に判断していると思います。最近、両国関係が悪化し、民間交流を進めるのが慎重になるほどの残念な状況ですが、このような時期であるからこそ、幅広く多様な文化交流を行い、草の根交流のネットワークを作る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イルボネ・セソシクの読者の皆様の積極的なご関心と応援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社団法人釜山韓日文化交流協会 <http://www.kojac.or.kr>



의인 이수현

특집 | 의인 이수현 20주기 기념 독후감 공모전 입상자 및 시상식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2021년 5월 8일(토)



의인 이수현 20주기 기념 독후감 공모전 입상자 및 시상식

5월 8일(토) 부산시 금정문화회관에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인 이수현 20주기 기념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2001년 일본과 한국의 가교가 되기를 꿈꾸며 일본 유학 중이던 이수현 씨는 도쿄 JR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희생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고 싶었던 이수현 씨의 뜻은 큰 공감을 불러일으켜 양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한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올해로 20주기를 맞아 출간된 평전 ‘이수현, 1월의 햇살’을 읽고, 이수현 씨의 인간애와 미래의 양국 관계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제시했다. 이날 고등부 32편, 대학부 27편의 응모작 가운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입상자 10명에게 마루야마 코우헤이(丸山浩平) 주부산일본국총영사와 김영진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이사장으로부터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다.



부 분	상	수상자	제 목
고등부	대 상	천다인(글로벌선진학교)	햇살이 된다는 것은
	금 상	박재혁(광명고)	우리가 당신의 다리를 지키겠습니다.
	은 상	신중환(울산외고)	이수현의 가교(架橋), 우리의 임무
	동 상	윤소현(부산여고)	내가 바라본 이수현은, 그에게 비춰진 나는.
		조혜주(경북외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
대학부	대 상	전형록(경북대)	돌담에 속삭이는 1월의 햇살같이
	금 상	김선욱(UNIST)	확산(擴散)
	은 상	이현승(부산외대)	편견 없는 인류애를 실천한 영웅
	동 상	오금택(부산대)	우리는 이수현입니다.
		김지수(계명대)	내 마음속의 약속

고등부 대상작

햇살이 된다는 것은

천다인 글로벌선진학교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에는 궁금증을 가장 먼저 느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작고도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세상을 비추고 얼어붙어 있는 것을 녹이며 살포시 우리를 감싸는 햇살이 될 수 있었나에 대해서 말이다. 또한, 양국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애도하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게 만든,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해내지 못한 그 일을 해낸 비법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일본 대학에 편입하여 일본에서 일하셨던 아버지와 일본에서 태어나 짧은 어린 시절을 보낸 오빠들, 심지어 내 초등학교 선생님은 매우 일본을 싫어하시던 분이였기에 나는 어릴 때부터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너무 많은 것을 들어왔고 그 뒤, 중학교에 입학하여 일본어를 배우고 그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혼란은 더욱 깊어졌만 가던 차에 만난 이 책은 나에게 정답과 같은 책이었다. 세상에 햇살로 기억될 그의 삶이 나에게 준 깨달음은 아주 커다랐으며 그 숭고한 정신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삶을 통해 몸소 보여준 그는 어느새 나의 본보기가 되어 버렸다.

책은 이수현 씨의 삶과 주변인들의 느낌과 추억,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책의 초반에는 많은 호기심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그의 삶은 그의 친구들과 부모가 말했듯 평범하였고 단지 실행력이 좋고 고집이 세며 올곧은 사람일 뿐 우리가 아는 영웅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도 그는 나에게 영웅과 같이, 아니, 더욱 멋있고 존경스럽게 다가왔다. 이 모순적인 상황에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책에서의 한 문구를 읽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수현 씨의 친구가 이수현 씨가 너무 영웅화되고 대단하게 칭송받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가 평범했기에 평범한 자신과 친구가 되었는데 자신이 알던 이수현 씨가 아닌 것 같아서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이는 '평범하였기에 더욱 대단한 거였다.'라고 답한 것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 부분이었다. '평범했기에 대단하다.' 이 문구만큼 이수현 씨를 잘 표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이 쉽게 하지 못할 일을 평범한 삶을 살아온 20대의 젊은이가 해냈기에, 그에 대한 경외감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와 마음을 울린 것이었음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마음을 울리고 깨달음을 준 부분 중 또 다른 하나는 한일관계



에 대한 상황이었다. 한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서로에게 우호적이지 않음은 요즘 초등학교도 아는 일이다. 우리 두 나라는 과거로 인해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으며 이를 시작으로 쌓인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의 문구 중 이런 말이 있었다. "한국인이 일본인을 구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구한 것"이라는 이 말, 나는 이러한 정신이 이수현 씨가 우리에게 바라고 두 나라에 희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라와 나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서로를 대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남들과 함께 생활하는 민족사회를 말이다. 나는 '이수현, 1월의 햇살'을 계기로 다시금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삶의 지혜를 배워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물론 한국이 받은 상처는 커다랐고 회복하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나아가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며 이수현 씨의 그 노력과 희생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의 유가족과 친구들이 힘쓰고 있듯이 나 또한 더욱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화합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절실하고도 희망적인 마음이 생겼다. 더는 서로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다.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금까지 나는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수현 씨가 살아온 삶은 내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주었다. 이제 남은 우리 두 나라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토대로 한일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그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수현 씨의 어떠한 부분이 양국 국민의 마음을 울렸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인간애'라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확신한다. 내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그랬듯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 말이다. 세상에서 유명한 말 중 이러한 말이 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줄 있다.' 이수현 씨의 이러한 마음은 부모님의 사랑과 신뢰로 인해서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책을 읽으며 부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다. 악기에 빠진 아들의 성적이 떨어진다 고 걱정을 하지만 그런데도 아들을 신뢰한 것과 서로 대화해 타협점을 찾는 이러한 교육방식이 이수현 씨의 존경받을 선택과 정신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책을 읽으며 이수현 씨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에게도 많은 존경심을 느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일본의 한 술 취한 사람을 구하다 희생되었음에도 일본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바램을 이루어주기 위해, 아들과 같은 상황의 유학생들을 위해, 양국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말이다. 이러한 부분이 더욱 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더불어 큰 안타까움을 주었다. 동정이 아닌 현시대에 대해 안타까움을. 현재 고등학생인 나는 이수현 씨를 알지 못하였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일본에 관심이 많아 이 공모전을 선생님께 추천받은 것이었는데 이제까지 그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과거가 아주 아쉬울 따름이다. 공모전을 준비하며 책을 읽고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블로그의 글을 읽으며 그 안타까움은 커져만 갔다. 많은 이들이 그를 기억하겠다고 기사와 내고, 다큐멘터리, 음악, 영화를 제작하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그를 추모하는데, 정작 그의 모국은 우리나라는 그를 잊어가는 것만 같아, 책을 읽으며 좌책감과 같은 여러 무거운 감정을 느꼈다. 주변 친구들에게 그에 관해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저 '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만 할 뿐 누구도 그에 관해 설명할 수도, 그가 무엇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부모님께 여쭙보았을 때 부모님은 그가 누군지 잘 알고 계셨고 주변 선생님들도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세대가 지날수록 그는 잊혀 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 계기였다. 나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수현 씨가 위대하기에 무조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닌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세대보다도 후세대가 중요한데, 점점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바뀌는 상황에서 더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젊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에,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처음 독후감을 쓸 때는 조금 막막했던 기억이 있다. 왜냐하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관하여 쓰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책을 완독하고 나니 내가 왜 이에 어려움을 느꼈는지 알게 되었기에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양국 관계발전 방법에 대해선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였기에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었다. 그러나 책에

서 보여주었듯이 삶에서의 태도로도 관계발전이 된다는 것이 내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나는 사소하게는 우리 삶에서의 언행과 행동이 한일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한 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란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이 책을 읽은 후 다시금 실감했다. 그렇다고 물론 내가 죽음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시각의 전환을 우리나라 국민이 가져보길 원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사로잡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갈등이 깊은 일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대해보고 그들과 대화해보고 이게 힘들다면 그저 일본을 욕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심해보고 일본에 대하여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 일제강점기에 대하여, 일본에 대하여 설명할 때 감정을 담거나 부러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렇다고 한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빼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고 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배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미움과 상처를 강조해 가르치는 것이 아닌 양국 관계발전에 대하여 학생들이 생각해 볼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내 주변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보아도 그들은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워할 수 있으나 적어도 왜 미워하는 것인지는 알고 미워할 수 있도록, 그러나 되도록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햇살이 된 것처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회를 주는 교육의 보급이 우리는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이수현 씨뿐만 아니라 선로에 떨어진 이를 구하기 위해 희생된 세키네 시로 씨에게도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나는 이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기회가 생김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다. 햇살이 되어 이기심으로 얼어붙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녹여 돌아보게 만든 당신의 삶에 감사한다. 내가 만약 당신을 만난다면 이 말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당신은 당신이 바라왔듯 한일 문화교류의 확실한 일인자가 되었다.'라고, 나는,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이다. 당신이 우리나라 국민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우리에게 세상이 아직은 따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 한일관계 발전에 다시금 희망을 보여주어, 햇살이 된다는 것은 차별 없는 사랑과 용기임을 알게 해주어 고맙다.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당신의 삶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해본다. 앞으로 나도 한일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교가 되도록 일본어를 더욱 열심히 배우며 알아가야겠다.

대학부 대상작

돌담에 속삭이는 1월의 햇발같이

전형록 경북대학교

햇살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나

언젠가 갔던 제주도에는 나지막한 돌담들이 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었다. 크고 작은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는 현무암 담 뒤로는 따뜻하다 못해 찬란하게 반짝거리던 햇벌이 내리쬐고 있었는데 그 따스함 속에서 나는 문득 시인 김영랑의 시 한 편을 떠올렸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불에 떠오르는 부끄러움같이/시의 가슴에 살포시 짓는 물결같이/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햇살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나. 그 질문에 대한 어렵듯한 답이 저 시에는 있다. 돌담에 ‘속삭이듯’ 다가오는 햇발은 어느새 고운 봄 길을 만들어 낸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스며들었지만, 어느덧 온 세상을 따뜻함으로 적시는 것, 그것이 햇살의 작동 양식이다. 우리가 잘 아는 지명 ‘밀양(密陽)’ 또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려준다. 햇살(陽)은 어느덧 ‘빹빹하게(密)’ 우리를 환하게 물들이고 있지만, 사실 이미 ‘은밀하게(密)’ 세상을 향해 온몸으로 내리쬐고 있었던 것이다.

꼭 이 햇살과도 같은 삶을 살다 간 청년이 있다. 어느덧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혼으로 세상을 적신 청년. 조용하고도 나지막하게, 그러나 누구보다도 강하고 또 겁게. 1월의 햇살, 이수현이다.

급격한 변화와 혐오의 시대에서 이수현을 읽기

2020년대라는 숫자의 변화와 함께 우리를 찾아온 것은, 단순히 무지막지한 전염병이 아니라,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그 속도에 올라타야만 한다는 조급함이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단결과 화합 같은 단어들은 이미 속도의 저편에 던져두고 성공해야만 한다는 강박과 이기심, 집단 간의 갈등, 타인에 대한 혐오를 동반한 조급함이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나의 뒤로 밀어내며 올라서야 한다고 강요받았고,



그렇게 속도와 단순한 몇몇 목표에 대한 집중이 이 변화에 대한 대항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치 이 속도에 대해 비웃기라도 하듯, 이수현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어린 시절부터 매사 고집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의 성격은 오히려 잘못 되고 무언가 나사가 빠져 돌아가는 광경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지 않게 만들었다. 무엇인가를 배우는 일은 또 어떤가. 고집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독학에 대한 고집은 세상의 일을 그저 편의와 안락함에 맡겨버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부단한 노력으로 성취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게 했다. 삶의 밀도를 차곡차곡 높여가던 그의 성장기는 속도가 이뤄낼 수 없는 삶의 다른 측면에서의 성장을 해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단순히 의지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뿐 아니라, 이수현은 직접 땀 흘려 몸을 움직이는 것의 가치를 잘 아는 청년이었다. 그는 기타 연주에 몰입하여 선율과 리듬을 창조해내는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었고, 땀 흘리는 더위 속에서도 자전거 페달을 굴려가며 더 넓은 세상과 사람들을 만났으며, 등산과 수영을 하며 수직의 세상을 오르내리고 수평의 세상을 헤엄쳐나갔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 이루어내는 균형 잡힌 발걸음 속에 속도에 대한 강박과 타인에 대한 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점진적인 성장에 대한 확신,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이수현의 성장 과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명백하다. 그의 친구인 성훈 씨가 말한 것처럼, 이수현이라는 친구는 친구들에게는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였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당신들의 자식이었다. 그가 타국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온몸으로 자신을 내준 이였다는 사실 이전에, 청년 이수현은 한 사람의 젊은이였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어떠한 특별함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정도 위에서 남을 품고 올바른 것에 기대가며 성장해왔다는 그 사실로 우

리에게 급격한 변화와 혐오의 시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 가야 할지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 모든 성장의 순간을 밑바탕으로 하여, 이수현이라는 청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한 모습이 2001년의 신쿠오보역 한 가운데 피어난 것이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도, 누군가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이 일은, 갑작스럽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연 같은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치열하게 묻고 성장하며 살아왔던 청년 이수현이 피워낼 수 있었던 필연적인 사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1년의 한일, 그리고 2021년의 한일

2001년 이수현이 피워낸 사랑의 한복판에는 오래고도 미묘한 관계가 한 꺼풀 더 덮여 있는데,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이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한 인류적 차원의 일로서 생각되어야 하겠지만, 그 속에는 한국인이 일본에서 한 사람의 일본인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적 차원의 프레임은 또 다른 질문과 과제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둔다.

2001년의 한일은 마치 이수현의 생전 바람처럼 2002년 한일 월드컵과 한류 열풍으로 관계의 회복과 융합이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시간을 지내왔다. 발전된 문화교류와 양국 간의 개방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화합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으며, '과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싶다.'라던 이수현의 뜻이 다양한 방향으로 퍼져나갈 수 있던 시간을 한일 양국은 함께 지내왔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점점 더 빨라지는 세상 속에서 화합의 뜻이 어디로 갔는지,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자던 그 의지가 어디로 갔는지 2021년의 한일관계는 반문하고 있다. 이제는 너무도 격해진 진영논리와 편 가르기 속에 한 민족 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종 문제, 혐오와 차별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너무도 안타깝고 처절할 정도로 슬픈 상황이다. 아득하고도 멀어 보였던 답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듯이, 2001년의 이수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질문뿐 아니라 답

에 가까운 과제 한 가지 또한 남겨두었다. 앞서 수현의 일화는 인류로서의 사건 위에 국가적 차원의 한 꺼풀이 덮여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과제를 볼 수 있도록 잠시 이 이불을 들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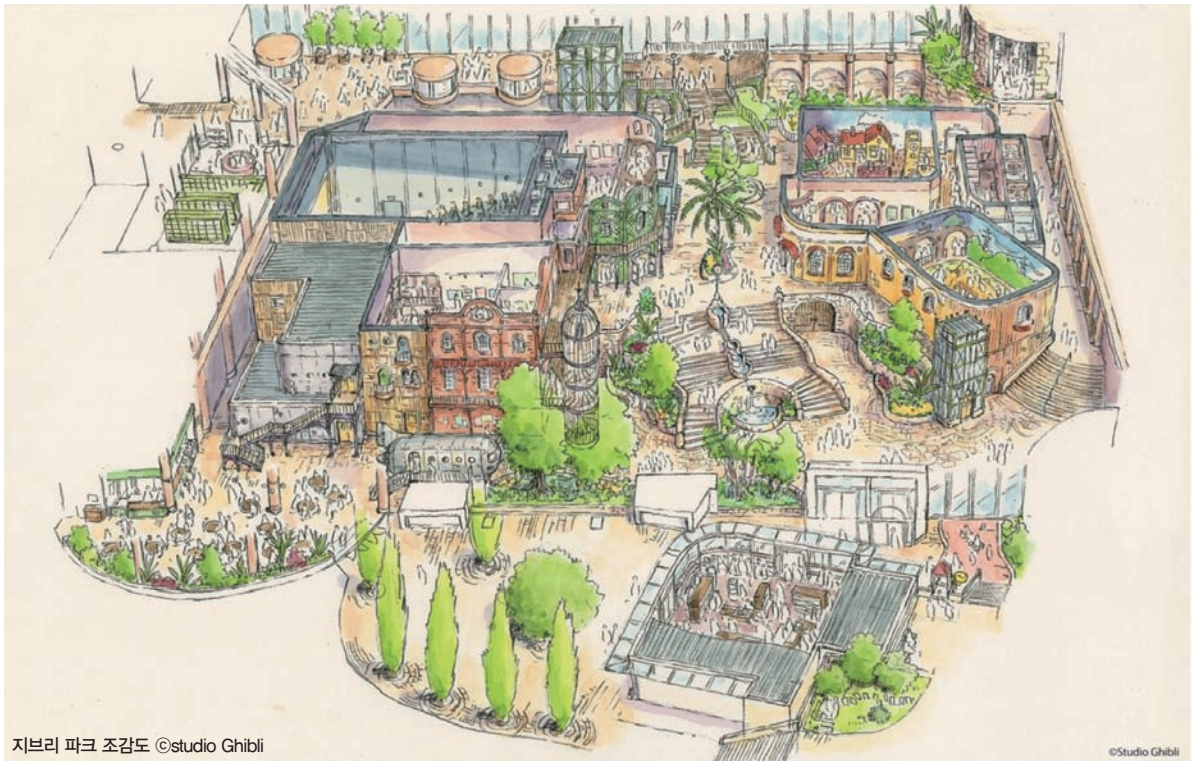
국가적 차원의 일은 때로는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현의 사건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초점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그 순간, '내'가 한국인이고, '네'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나도 처절하게 느꼈던 아픔이 곧 '네'가 느낄 수 있는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 오랜 시간 전의 '내' 이야기가 곧 '네'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섬뜩한 깨달음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이 함께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고도 관심 없는 주체지만, 그것이 타인이 아니라 그냥 인간과 삶이라는 내 존재 자체의 이야기로 들어온다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2021년의 한일 양국은 하나의 국가 주체이기도 하지만, 그 구조적인 이불 밑에 덮인 우리는 전부 같은 '삶'을 치열하게 살아나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 속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모두 담겨 있다.

돌담에 속삭이는 1월의 햇발같이

묵묵히 지나온 20년을 돌아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주변은 햇살로 가득 차 있다. 2001년 1월의 햇살은,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21년의 햇살로 따뜻하게 내리쬘고 있는 것이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하늘을 우러르고 싶었던 그 마음은 아마 이수현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조용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는 그 햇살처럼 수현의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깊은 감동을 준다. 그 온기와 찬란하게 빛나는 저 빛이 지난 20년을 환하게 비춰왔듯, 우리의 앞으로의 나날들도 빛낼 수 있기를, 수현의 이야기를 읽으며 전심으로 함께 소망해 본다.





지브리 파크 조감도 ©studio Ghibli

©Studio Ghibli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만나는 일본의 미술관 박물관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三鷹の森ジブリ美術館)은 미야자키 하야오(宮崎 駿) 감독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도 유명한 만화 속 세상 같은 미술관이다. ‘이웃집 토토로(1988년)’를 비롯해 ‘추억의 마니(2014)’까지 동심과 자연, 따뜻한 인간애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볼 수 있고, 그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다시 한번 감동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에는 항상 거대한 숲과 바람, 자연이 등장한다. 이 미술관도 커다란 숲이 있는 이노카시라 공원(井の頭公園) 안쪽에 있어, 공원 숲길을 가로질러 찾아가는 순간부터 두근두근 지브리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것 같다. 숲길 한쪽에서는 ‘이웃집 토토로’의 메이가 밀짚

모자를 쓰고 씩씩하게 두 팔을 흔들며 걷고 있을 것 같고, 숲 검둥이 먼지가 굴러다니며 길을 안내해 줄 것만 같다. 숲길 사이사이로 보이는 고양이 버스 표지판을 따라 도착



이노카시라 공원



벚꽃의 명소로도 유명한 이노카시라 공원의 호수

한 곳에는 거대한 토토로가 매표소 안에 앉아 방긋 웃으며 반기는 듯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마녀 배달부 키키 (1989년)'의 스테인드글라스와 토토로의 타일 모자이크 벽화가 눈 앞에 펼쳐진다.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에서 유리창, 상들리에까지 구석구석의 모습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던 작은 벽돌집을 옮겨놓은 것처럼 신기해서 자꾸 두리번거리게 된다. 1층의 상설 전시실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원리와 역사

등을 소개하는 전시물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통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10여 분 정도의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는 영상 전시실도 상상력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영상 이외에 창문과 의자 등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난 곳이다.

2층에는 지브리 작업실과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스케치, 채색 등)을 볼 수 있도록 꾸며진 전시실과 그때그때의 애니메이션에 맞게 기획된 기획 전시실, 기프트숍이 있다.



지브리 미술관



지브리 미술관



지브리 미술관



지브리 미술관



지브리 작업실



애니메이션 스테인드글라스

2층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옥외 테라스에서 소프트아이스 크림과 핫도그, 식사 등을 판매하는 가게와 야외 점포가 그림처럼 있다. 알록달록한 타일로 꾸며진 수돗가의 수도꼭지에는 ‘마녀 배달부 키키’의 고양이 지지가 새침하게 앉아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또한 옥상으로 올라가는 좁은 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천공의 성 라퓨타(1986년)’에서 폴꽃을 지키던 따뜻한 로봇 병사 거신 기병이 실제 크기의 조형물로 우뚝 서 있어

함께 사진을 찍기에도 좋다. 미술관을 지키는 병사처럼 옥상에서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신 기병의 뒤로 나 있는 무성한 풀숲 사이의 돌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여주인공 시타가 세계를 정복시키려는 무스카로부터 라퓨타를 지키기 위해 주문을 외웠던 장면이 떠오르며, 라퓨타의 왕실에 있던 고문자가 적힌 정육각형 비석도 자리하고 있다. 아름답고 거대한 자연과 욕심 많은 인간의 공생, 아이들의 동심, 그리고 또 다른 신비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지브



토토로의 고양이 버스



천공의 성 라퓨타와 거신 기병



목기오라보우사(밀집모자) 카페



옥상의 작은 전망대

리 애니메이션처럼 자연과 조화롭게, 꿈과 현실을 오가는 듯한 섬세한 공간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1년)'에서 모험을 하는 치히로처럼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하나의 터널이 되어줄 것 같다.

지브리 파크

2022년 일본 중부 아이치(愛知)현의 아이치 엑스포 기념 공원(나고야 인근)에 스튜디오 지브리의 테마파크인 지브리 파크(ジブリパーク)가 개장할 예정이다. 청춘의 언덕(青春の丘), 지브리의 대형창고(ジブリの大倉庫), 모노노케의 마을(もののけの里), 마녀의 계곡(魔女の谷), 돈도코 숲(どんどこ森) 등 총 다섯 개의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을 배경으로 꾸며진다고 한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환경 보호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한 그루도 베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도 설치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공간을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풍

경으로 꾸미게 된다. 도쿄의 지브리 미술관과 함께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팬에게는 꿈과 같은 장소이다.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1941~)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大正宮崎人 事 談

애니메이션 감독 및 연출가. 도쿄에서 태어나 가쿠슈인 대학(学習院大学)을 졸업, 1963년 도에이 동화(현 도에이 애니메이션, 東映アニメーション)에 입사하여 '알프스 소녀 하미디(1974년)', '엄마 찾아 삼만리(1976년)', '미래 소년 코난(1978년)' 등 수많은 작품의

원화와 각본을 담당했다.

첫 감독 작품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인 '루팡 3세 칼리ostro 성의 비밀(1979년)'을 제작했으며, 이후 스튜디오 지브리를 설립(1985년)하여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1984년)'부터 '벼랑 위의 포뇨(2008년)'까지 수많은 인기 애니메이션의 감독을 맡았다. 2001년에 감독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흥행 수입 304억엔, 관객 동원 2,350만 명(일본 내)으로 일본 영화사상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수상,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지브리 미술관 역시 그의 기획 아래 탄생했으며 일본의 숨겨진 명소들을 애니메이션의 배경지로 등장시켜 관광 명소로 사랑받게 하고 있다.



바람의 계곡 맥주



후쿠오카시

애니메이션의 성지를 찾아 귀멸의 칼날



등나무가 아름다운 후지야마신사 ©이진우



관광 명소인 디자인후





다자이후 텐만구



호만구카마도신사 ©Miya.m



호만산 ©Miya.m



호만구카마도신사 산도 ©Saigen Jiro

최근 일본에서 사회 현상이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작품인 귀멸의 칼날(鬼滅の刃).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을 찾아보았다. ‘귀멸의 칼날’은 일본의 다양한 풍경이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며 그중에서도 작가의 출생지라고 하는 후쿠오카(福岡) 주변에 많다고 한다. 후쿠오카는 일본 규슈의 교통,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아시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 번 선정된 곳이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1시간, 부산에서 배로 3시간 정도의 거리로 한국과도 가까워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작품의 중심이 되며 귀멸의 칼날 팬들에게는 성지로 불리는 가마도신사(竈門神社)의 모델인 호만구카마도신사(宝満宮竈門神社)도 후쿠오카의 다자이후(太宰府) 지역

에 있다. 다자이후는 후쿠오카의 유명 관광지로 봄 매화가 아름다우며, 학문의 신을 모시고 있어서 합격을 기원하는 신사로 많은 사람이 찾는다. 후쿠오카에서 다자이후까지는 후쿠오카의 변화가 덴진(天神)에서 니시테쓰(西鉄) 열차를 타고 이동한다. 니시테쓰 다자이후역에서 호만구카마도신사까지는 약 2km, 역 앞의 상점 거리와 다자이후 텐만구(太宰府天満宮) 신사를 지나 규슈정보대학(九州情報大学)에서 산길을 오르면 도착하게 된다. 다자이후 텐만구는 대부분이 평지여서 쉽게 둘러볼 수 있지만 호만구카마도신사는 호만산(宝満山) 중턱에 위치해 조금은 가파른 계단과 고개를 오르게 된다. 호만구카마도신사는 인연을 맺어주는 신사(えんむすび, 엔무스비)로 유명하며 ‘귀멸의 칼날’의 흥행 이전에도 연애를 위해 젊은 남녀들이 많이 찾던 곳이다. 1350년이 넘는 오



오마모리(お守り, 부적) 판매소 ©宝満宮竈門神社



귀멸의 칼날 팬 아트 ©宝満宮竈門神社



하치만 카마도신사 ©大分県商工観光労働部雇用労働政策課



귀멸의 칼날 종이접기 ©大分県商工観光労働部雇用労働政策課

랜 역사의 신사는 ‘귀멸의 칼날’이 시작된 곳으로 여겨지며 3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신사 곳곳에는 작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신사 한편에 위치한 소원을 적는 애마(絵馬)는 대부분이 ‘귀멸의 칼날’ 팬 아트로 꾸며져 있다.

또한 후쿠오카에 인접한 오이타(大分)는 작품에 등장하는 혈귀, 즉 오니(鬼)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 하치만카마도신사(八幡竈門神社)가 있으며 작품처럼 이 지역의 인물이 오니를 퇴치한다. 99개의 돌계단이 있는 이곳도 팬들 사이에서 ‘귀멸의 칼날’의 성지로 유명하며 팬들이 찾고 있다. 인근 마을인 벳푸(別府)에는 오니(鬼)가 가득한 7개의 온천 지옥이 있는데 이곳 중 한 곳이 가마도 지옥(かまど地獄)이라 ‘귀멸의 칼날’을 이용한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다.

‘귀멸의 칼날’에서는 유독 등나무(藤)꽃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등나무꽃은 오니(鬼)가 싫어하며 이로 만든 독은 오니(鬼)를 퇴치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후쿠오카와 규슈 지역에는 등나무꽃의 명소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후쿠오카의 구로키노오후지(黒木の太藤), 기타큐슈의 가와치후지엔(河内藤園), 나가사키의 후지야마신사(藤山神社)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5월 초가 되면 보랏빛 등나무꽃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귀멸의 칼날’의 충주 시노부(胡蝶しのぶ)를 떠오르게 한다.





귀멸의 칼날 팬 아트 예마 ©大分県商工観光労働部雇用労働課 策課



가와치후치엔



고토게 코요하루(吾峠呼世晴, 1989~)

일본의 만화가로 악어 캐릭터를 사용해 팬들에게는 악어 선생이라고 불린다. 제70회 JUMP 트레저 신인 만화상 가작 수상, 문주시로 형제로 데뷔했으며 단편 연재를 이어가다 첫 장편 만화인 '귀멸의 칼날'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개인 신상을 출신지와 생년월일을 제외하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본명이나 외모, 성별, 혼인, 가족 관계 등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출신지는 후쿠오카로 규슈의 다양한 풍경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한다.

귀멸의 칼날 鬼滅の刃

'귀멸의 칼날'은 일본의 만화 잡지 주간 소년 점프(週刊少年ジャンプ)에서 연재된 시대극 판타지 배틀물 장르의 작품으로 고토게 코요하루(吾峠呼世晴)로 작가의 첫 번째 장편 만화다. 일본어 약칭은 기메쓰(鬼滅), 한국에서는 귀멸, 귀 칼로 불리고 있다. 일본의 다이쇼(大正) 시대가 배경이며 오니(鬼, 사람을 먹는 혈귀)와 귀살대라는 소년, 소녀 집단의 대결 구도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캐릭터가 확실하고 빠른 전개 속도에 몰입감이 상당한 작품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5화(최종화)로 연재되었다. 만화 보다는 이후 방영된 애니메이션(2019)이 큰 인기를 끌며 일본 영화 흥행 역사의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현재(2021년 2월 15일)까지 누적 발행 1억 5천만 부, 일본 오리콘 사상 최초 단권 판매량 500만 부 돌파, 일본 박스 오피스 역대 1위 등 단기간의 기록으로는 '귀멸의 칼날'을 능가하는 작품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후 개봉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劇場版「鬼滅の刃」無限列車編)'은 일본 개봉 3일 만에 350만 관객을 동원 9일 만에 흥행 100억 엔을 기록하며 역대 일본 영화 사상 최단기간 흥행 수입 100억 엔을 돌파했고, 2021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19년 만에 2위로 밀어내며 역대 일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서는 한편, 원피스 극장판 14편 모두를 합친 수입을 넘어섰다. 한국에서도 대원씨아이에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극장판 역시 관객 200만을 돌파하며 2021년 영화 흥행 순위 1위에 올랐다.



알록달록 컬러풀한 색감을 살린 여름 채소 한 상 차림



일본에서는 대중적인 대표 어종이 전갱이입니다. 전갱이(아지)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지(맛, 味)가 좋으니까 아지(전갱이, 鰯)’라는 재미없는 말장난 같지만, 일본 에도시대의 저명한 유학자인 아라이 하쿠세키가 도가(東雅)라는 어원사전에 이 설을 기록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갱이는 연중 맛있는 생선이지만 여름이 제철입니다. 제철 전갱이는 지방이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신맛이 있는 초절임으로 만들 것을 추천합니다. 초절임 생선은 하룻밤 냉장고에 재워야 식초 맛이 부드러워져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선에 곁들인 오크라의 점액질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 ‘뮤신’이 풍부하며, 일본의 대표적인 여름 채소입니다.

여름 채소를 이용한 두 번째 요리는 아게비타시입니다. 가지, 애호박, 파프리카 등은 여름 채소로 색이 선명하고 맛이 진한 것이 특징인데 이런 색깔과 맛을 살리려면 ‘아게비타시’를 추천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맛이 응축되어,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다시의 맛을 더합니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가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 ‘이치후지, 니타카, 산나스비(一富士, 二鷹, 三茄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 첫 꿈에 후지산, 매, 가지가 나오면 운이 좋다는 뜻입니다. 가지(나스, 茄子)는 ‘일을 이룬다(고토오나스, 事を成す)’는 의미로 꿈에 나오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본에서 맥주 안주로 자주 찾는 가키노타네를 튀김 옷으로 사용한 튀김 요리입니다. 가키노타네는 매콤한 쌀과자로, 색깔과 모양이 과일인 ‘감(가키, 柿)’의 씨와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속 재료는 닭 안심, 아보카도, 매실 과육, 차조기 잎입니다. 아보카도는 수확 후, 후숙시키면 부드러워지고 먹기 쉬워집니다.

껍질의 녹색이 검은빛을 띠며, 표면이 약간 말랑해지기 시작할 무렵이 먹기 좋은 시기입니다.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프리카는 대부분이 외국산으로, 그중 약 80%가 한국산입니다.

집필 시미무라 코타(島村公大)

협력 나카무라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초절임 전갱이, 다진 오크라



【재료】

전갱이(소) 1/2마리 | 오크라 2개 | 생강 5g
 <초절임용> 소금 적당량 | 식초 100cc
 <가케스> 다시 20cc | 우스쿠치 간장 5cc | 설탕 2g | 식초 10cc

【조리법】

- ① 전갱이는 3장 뜨기를 한다.
- ② 소금을 뿌려 30분간 둔다.
- ③ 소금을 물로 헹구고 식초에 15분간 절인다.
- ④ 갈비뼈, 가운데 뼈, 껍질을 제거하고 저며 썬다.
- ⑤ 오크라는 데쳐서 찬물에 식히고 점액질이 나올 때까지 칼로 두들긴다.
- ⑥ 가케스의 재료를 냄비에 넣고 한소끔 끓인 후 식혀둔다.
- ⑦ 전갱이, 오크라를 담고 가케스를 뿌린 후
가늘게 채썬 생강을 곁들인다.



여름채소 아게비타시



【재료】

가지 1/8개 | 방울토마토 2개 | 노랑 파프리카 1/10개
 애호박 1/10개 | 연근 1/3개 | 래디시 1/2개
 <절임지> 다시 150cc | 우스쿠치 간장 25cc | 미림 25cc

【조리법】

- ① 가지는 껍질 면에 칼집을 넣고 조각으로 썬다.
- ② 연근은 껍질을 벗겨 썬다.
- ③ 노랑 파프리카, 애호박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④ 절임지를 냄비에 넣고 한소끔 끓여 식힌다.
- ⑤ 160~170℃의 기름에 ①, ②, ③을 튀긴다.
- ⑥ 방울토마토는 ⑤에 살짝 넣었다 뺀 후, 얼음물에 담가 껍질을 벗긴다.
- ⑦ 절임지에 ⑤, ⑥을 담근다.
- ⑧ 잠시 동안 냉장고에 넣어 식힌 후, 그릇에 담고
가늘게 채 썬 래디시를 곁들인다.



닭 안심과 아보카도 오카키아게



【재료】

닭 안심 2장 | 아보카도 1/2개 | 차조기 잎 3장 | 매실과육 적당량
 소금 소량 | 레몬 1/8개 | 아스파라거스 1/3개 | 튀김기름(식용유) 적당량
 <튀김옷> 가키노타네(柿の種) 적당량 | 달걀 흰자 적당량 | 박력분 적당량

【조리법】

- ① 닭 안심은 힘줄을 제거하고 칼집을 넣어 펼친 후, 소금을 살짝 뿌려둔다.
- ② 아보카도는 껍질, 씨를 제거하고 닭 안심의 크기에 맞춰 썬다.
- ③ 가키노타네는 비닐봉지에 넣고 절구봉으로 두들겨 부수
분말 상태로 만들어 튀김옷으로 사용한다.
- ④ 닭 안심에 차조기 잎을 얹고, 그 위에 매실 과육을 바른 후
아보카도를 얹어 만든다.
- ⑤ ④를 박력분→달걀 흰자→가키노타네 순으로 튀김옷을 입힌다.
- ⑥ 160℃의 기름에 튀겨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⑦ ⑥을 그릇에 담고,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튀긴 아스파라거스와
빗살 모양으로 썬 레몬을 곁들인다.





세토내해의 풍경

아름다운 바다와 맛있는 우동 가가와의 미치노에키

가가와(香川)는 일본 시코쿠 섬의 동북쪽 세토내해(瀬戸内海)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일본에서 가장 긴 세토대교(瀬戸大橋)로 본 섬과 연결되어 있다. 일본에서 가장 작은 현이지만 세계적인 국제 예술 행사인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열리며 시코쿠 교통의 중심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사누키(讃岐)라 불렸으며, 사누키 평야에서 생산되는 밀로 만든 사누키 우동은 일본을 대표하는 우동으로 인기가 높다. 우동 생산량, 소비량이 일본 1위로 스스로를 우동현이라 부르며 관광 홍보를 하고 있다. 현 내에 600여 곳의 우동 가게가 있으며 인기 있는 가게를 둘러보는 우동 투어도 인기가 높다. 세토대교와 세토내해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사누키 우동을 맛볼 수 있는 가가와의 고속도로 휴게소 미치노에키를 찾아보았다.



세토대교©Kanchi1979



세토내해와 세토대교의 풍경을 만나다.

세토대교(瀬戸大橋)는 일본 본토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와 시코쿠 가가와현을 잇는 다리로 일본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 중 하나다. 세토내해 5개 섬 사이에 걸친 6개 교량과 그 사이를 잇는 고가교로 구성되며 약 13.1km의 길이를 가진다. 세토대교를 건너려면 자동차로 20분 정도 걸리며 도중 쉬어 갈 수 있는 미치노에키도 잘 마련되어 있다. 세토대교의 가가와현 입구 인근에는 우타즈 린카이공원(うたづ臨海公園), 세토대교 기념공원(瀬戸大橋記念公園) 두

곳에 미치노에키가 있으며, 우타즈 린카이 공원에서는 세토내해의 멋진 풍경과 세토대교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편의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다. 세토대교 기념공원은 세토대교 기념 박람회가 열렸던 곳으로 세토대교의 설계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세토대교 기념관, 다양한 예술 작품이 있는 세토우치미술관과 넓은 분수 공원, 잔디 광장으로 꾸며져 있다.



우타즈 린카이공원©아라츝



우타즈 린카이공원©아라츝



세토대교 전망대



세토우치 미술관



엔젤로드©663highland



간케케이©663highland

새토내해의 섬 여행 쇼도시마

가가와현은 일본의 지중해라 불리는 새토내해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크고 작은 수많은 섬이 있다. 나오시마(直島), 데시마(豊島), 쇼도시마(小豆島) 등이 관광지로 유명하며 각 섬에서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의 전시장, 조각, 미술품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 중 쇼도시마는 가가와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아름다운 해변도로인 엔젤로드, 일본 3대 계곡 중 하나인 간카케이(寒霞溪) 계곡 등 멋진 드라이브

코스도 있다. 쇼도시마는 일본 올리브 재배의 발상지이며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간장, 소면 등 특산품도 다양한 곳이다. 쇼도시마의 미치노에키는 쇼도시마의 특산물인 올리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보며 풍차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쇼도시마 올리브 공원(小豆島オリーブ公園)과 쇼도시마의 소면, 쇼도시마의 사누키 우동 고비키 우동(こびきうどん), 올리브 라멘(オリーブラーメン) 등을 맛보고 숙박도 가능한 쇼도시마 후루사토 무라(小豆島ふるさと村) 등이 있다.



쇼도시마 올리브 공원©shodoshima Olive Park

따뜻한 우동 한 그릇과 힐링 온천

가가와의 서쪽에는 오랜 역사와 785개의 계단으로 유명한 고토히라궁(金刀比羅宮) 신사가 있는 고토히라(琴平)가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누키 우동 가게가 있으며 나카노 우동 학교(中野うどん学校)에서는 직접 사누키 우동을 만들고 맛볼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다. 고토히라 남쪽에는 아름다운 계곡과 온천이 있는 미치노에키 소라노유메 모미노키 공원(空の夢もみの木パーク)이 있으며 가가



고토하라궁



소라노유메 모미노키 공원©Chunan shinkousha



나카노 우동학교©中野うどん



시오이리 온천©Chunan shinkousha

와의 다양한 특산물과 요리를 맛보며 지하 500m에서 솟아오르는 천연 온천 시오이리 온천(塩入温泉)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瀬戸内国際芸術祭)는 일본의 지중해라 불리는 다도해 세토내해에서 열리는 국제예술제로 2010년 처음 개최하여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현대 미술 축제다. 세토내해는 예로부터 일본 주고쿠(中国), 시코쿠(四国) 지역의 해양 교통 중심지로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섬 주민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세토우치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최한 문화제로 섬과 섬 주변의 항구에 미술 작품의 전시, 예술가, 극단, 악단 등에 의한 행사, 지역 전통 예술, 제사와 연계한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예술제가 개최됨으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게 되고 섬 주민과 교류에 의해 섬의 활력을 되찾고 섬의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살린 현대 미술

을 통해 세토우치의 매력을 발산, 지금은 세계적인 국제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치노에키란?

道の駅

미치노에키(道の駅)는 일본의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자가 제휴하여 설치한,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의해 등록된 상업시설, 체험시설, 지역부흥시설 등이 하나가 된 도로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며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등 길이 나 있는 곳의 휴게시설을 미치노에키라 부른다. 1991년 테스트로 시작 1993년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게 기능(Rest), 도로 이용자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정보 발신 기능(Information),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개발, 판매와 함께 지역 활성화 기능(Community) 등 3가지 기능을 담당하며 일본 전국에 1,187곳이 등록되어 있다. (2021년 6월 기준)



우라노사키역

벚꽃이 만개한 소소한 시골 마을 풍경 속으로

사가(佐賀)는 일본 규슈 북서부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후쿠오카(福岡), 서로는 나가사키(長崎)와 인접하고 있으며 현해탄(玄界灘), 아리아케(有明) 바다와 마주하고 있다. 북쪽은 산지, 남쪽은 평야 지역이 발달해 있으며 강과 계곡, 온천이 많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봄을 맞이하며 벚꽃이 만개한 사가의 소소한 시골 마을 풍경을 걸어보았다.

사가 벚꽃의 개화는 보통 3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3월 말, 4월 초면 만개한다. 온난화로 인해 해마다 벚꽃의 개화가 앞당겨지고 있어 벚꽃을 보기 위해서는 3월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벚꽃의 명소로 알려진 곳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다케오 온천

우선 찾은 곳은 다케오 온천(武雄温泉), 교통이 편리한 후쿠오카와 JR 열차로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오랜 역사의



다케오신사



다케오시 도서관



엔노우지



엔노우지 산도



바바의 야마자쿠라

온천과 료칸이 있어 숙박도 편리한 곳이다.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의 모델이 된 다케오시 도서관, 다케오 신사(武雄神社)의 3,000년 된 녹나무, 규슈 올레길의 다케오 코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한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다케오 온천은 마을 곳곳에 벚꽃이 만개하며 다케오 신사 주변과 도서관 앞 공원이 벚꽃 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면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지는 풍경의 명소들이 있는데 엔노우지(円応寺)의 산도(参道, 참배길)와 바바의 야마자쿠라(馬場の山桜)가 그것이다. 엔노우지까지 가는 약 100m에 이르는 언덕길 양쪽으로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벚꽃 터널을 걸을 수 있으며 바바의 야마자쿠라는 유채꽃이 만개한 언덕의 한 가운데 수령 120년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벚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다.

마쓰우라 철도의 벚꽃 전차

다케오 온천역에서 열차를 타고 서쪽으로 향하면 사가의 도자기 명소를 지나게 된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아리

타 도자기, 이마리 도자가가 만들어지는 곳이 이 지역이며 조선 도공의 숨씨를 엿볼 수 있으니 잠깐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열차의 종점인 이마리(伊万里)역에는 히라도(平戸), 사세보(佐世保) 등 규슈 서쪽의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작은 규모의 열차 회사인 마쓰우라 철도(松浦鉄道)의 전차와 만날 수 있다. 한 량의 완행열차를 타고 풍경을 감상하며 가다 보면 간이역인 하제(波瀬)역과 우라노사키(浦ノ崎)역 사이에서 벚꽃 터널을 만날 수 있다. 두



마쓰우라 철도 하제~우라노사키 구간



우라노사키역



우라노사키역 철길

역 모두 하루 평균 40명 이하가 이용하는 시골 마을 간이 역이지만 벚꽃 시즌이 되면 이곳을 찾는 사람으로 북적거린다. 우라노사키역은 사쿠라노에키(桜の駅)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소소한 벚꽃 마쓰리(祭り, 축제)가 열린다.

자전거를 타고 벚꽃 드라이브

다시 열차를 타고 사가현의 중심 도시인 사가로 향한다. 사가역에 도착 사가는 중심도시이지만 주변의 다른 규슈

현의 중심 도시(후쿠오카, 구마모토, 나가사키)보다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곳에서는 역 근처의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빌려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본다. 역 남쪽에는 조후쿠사이클 로드(徐福サイクルロード, 서북)라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약 6km의 도로 주변에는 1,200그루의 벚꽃 나무가 심어져 있어 벚꽃 시즌이 되면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낸다. 자전거를 타며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벚꽃 아래 영화 속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



조후쿠 사이클 로드



우레시노강변

다. 서복(徐福)은 진시황의 명을 받아 불로초를 찾아 떠난 전설 속의 인물로 사가의 곳곳에 서복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며 사이클 로드의 출발점에 서복동상(徐福像)이 있다.

우레시노 온천

사가의 벚꽃 산책 중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우레시노 온천(嬉野温泉), 피

부가 부드러워지는 온천으로 유명하며 우레시노강을 따라 60여 곳의 숙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녹차의 산지로도 유명하며 초록의 녹차밭과 함께 벚꽃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우레시노강이 흐르는 계곡에는 공원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상류의 도도로키 공원(轟の滝公園)에는 폭포와 함께 230그루의 벚나무가, 하류의 온천 공원에는 넓은 잔디밭과 함께 100여 그루의 벚나무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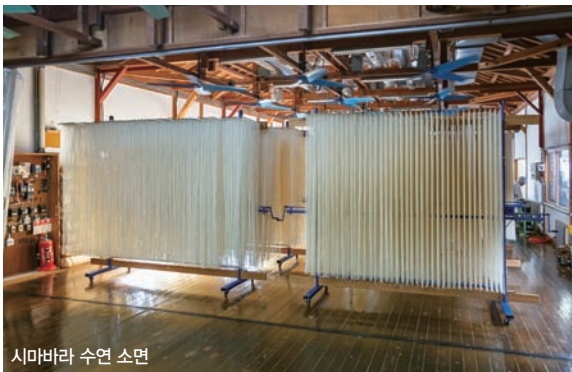
우레시노 온천 공원



우레시노 온천의 빨간 다리



일본 시골 마을 특산품이 한국의 고급 레스토랑에 오기까지 시마바라 수연 소면



시마바라 수연 소면

시마바라 수연 소면

일본의 남쪽 섬 규슈의 서쪽, 나가사키(長崎)의 시마바라(島原) 반도의 미나미시마바라(南島原)는 소면으로 유명하다. 일본 수연소면(手延そうめん, 손으로 늘려 만드는 소면)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으며, 약 300여 곳의 면 공장이 작은 시골 마을에 모여 있다. 지역 북쪽에는 1,000m가 넘는 운젠산(雲仙山), 남쪽으로는 아리아케해(有明海)가 있으며 자연환경이 좋고, 기후는 온난, 적절한 강우량과 일조시간도 풍부하여 소면을 만들기 좋다. 일본 최초



의 국립공원인 운젠아마쿠사국립공원(雲仙天草國立公園)과 시마바라반도현립공원(島原半島國立公園)도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시마바라의 수연 소면은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지며 중국



에서 전해져 왔다는 설과 일본의 다른 수연 소면 생산지인 시코쿠(四国)의 쇼도시마(小豆島)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 의해 소면 만들기가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쇼도시마 주민들의 이주는 1637년 일본 최초의 농민 봉기인 시마바라, 아마쿠사의 난(島原・天草の乱)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 수 만 명이 사망했고, 그로 인한 인구 감소를 메우고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의 다른 지역 주민을 이주 시켜 살게 했다. 이곳의 수연 소면은 일본에서 최고급의 품질로 인정받아 관광 상품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웃인 한국에도 수출하고 있으며 시마바라 수연 소면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도 운영 중이다.

진가와

진가와(陣川)는 미나미 시마바라에서 360년 12대에 걸쳐 수연 수면을 만들어온 제면소로 소면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루 소면



냉 소면



진가와 제면소



면 뽑는 기계



면을 늘리는 방법



한국 역삼의 진가와 1호점

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수연 소면은 세계 미식협회에서 4년 연속 최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이자 면 장인인 진가와 토시오는 일본의 식품명장으로 일본 총리 훈장을 받았다.

수연 소면은 대량 생산이 안되고 제작에서 검수까지 3일이 걸리며, 질 좋은 홋카이도(北海道)산 밀가루를 사용해

서 만들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수연 소면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오랜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계절과 날씨, 기온과 습도에 따라 염분의 농도와 반죽을 미세하게 달리해야 하며 일정한 길로 건조하기도 쉽지 않다.

2017년부터 한국의 외식 사업가(장정훈, 봉우리 대표)가 진가와와 상호와 사용권을 받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진가와 레스토랑에서는 진가와와의 면(우동, 수연 소면)을 직수입하고 있어 미나미시마바라의 수연 소면을 맛볼 수 있게 되었고 여의도, 역삼, 판교, 을지로, 대구에도 매장이 있어 한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미나미시마바라 식당

미나미시마바라 식당은 미나미시마바라의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의 폐교를 활용하여 만든 지역 주민들의 작은 식당이다. 마을의 어머님들이 만드는 미나미시마바라의 향토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특산품인 수연 소면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만날 수 있다. 특히 16종류의 다양한 맛의 소면



진가와 토시오



폐교를 개조한 미나미시마바라 식당



교실에서 맛보는 시마바라 향토요리



미나미시마바라 식당의 직원들



おかえりなさいのまち南島原

오카에리 소면 세트

요리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오카에리소면 세트(おかえりそうめんセット)는 모양도 좋아 인스타에서 화제가 되었다. 주민들의 작은 활동이 지역을 활성화하고 관광 명소로 만들게 된 좋은 사례다.

규슈 올레 길 미나미시마바라 코스

한국에 시마바라 수연 소면이 알려지게 된 것은 한국에서 수출한 관광 브랜드인 올레길의 역할이 크다. 규슈 올레길 체험과 취재로 미나미시마바라를 찾은 여행 작가(박용준, JUST GO 규슈)가 올레 길을 걸었고, 이때 지역 관광 공무원(가지하라 카즈타카, 梶原和隆)의 소개로 들린 진가와와 미나미시마바라 식당을 한국의 외식 사업가에게 소개하여 진가와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되었다. 양국의 관광 한일 문화교류의 상징인 규슈 올레가 식 문화의 교류도 만들게 된 것이다. 규슈 올레길 미나미시마바라 코스는 미나미시마바라의 해안선을 따라 항구와 시골 마을의 풍경을 둘러



규슈 올레 길 미나미시마바라 코스

보며 걷는 약 10km의 산책 코스로 제주 올레 10코스 용머리 해안 길을 떠오르게 하는 풍경이 특징이다. 규슈 올레는 제주의 곳곳을 걸어서 여행하며 제주의 속살을 발견하는 제주올레처럼 웅대한 자연과 수많은 온천을 가지고 있는 규슈 문화와 역사를 오감으로 즐기며 걷는 트레킹이다.

제주를 닮은 미나미시마바라 코스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우정의 해'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이 올해로 17회를 맞이한다. 한일축제한마당은 양국의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가는 축제로 시민 교류, 청소년 교류, 지방단체 교류 등이 포함된 대규모 문화 교류 행사다. '만날 수 없어도 함께 가요(会えなくても共に歩もう)'를 테마로 진행되는 한일축제한마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으로 양국 문화교류에 관심 있는 열정적인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

일시 9월 5일(일) 온라인 개최 예정(코엑스 전시장 D1홀)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실행위원회

주관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모집 개요】

응모 자격 고등학생 이상, 한국과 일본 문화 교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가능(단체 지원 가능)

모집 분야

- 홍보팀 : SNS 홍보, 영상촬영 및 편집, 사진촬영, 당일 현장 홍보, 홍보 부스 운영, 양케트 작성 지원
- 무대팀 : 무대 및 출연팀 지원, 대기실 운영, 출연팀 관련 부스 운영, 악기 운반
- 행사운영팀 : 운영사무국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통역 및 도우미, 안전 관리(긴급 대응), 행사장 안내
- *우선 선발 :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자원봉사자 지원한 합격자
- *코로나 19 영향으로 경우에 따라 오프라인,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음.

【신청 기간 및 방법】

기간 6월 14일(월)~ 7월 19일(월)

서류 신청서 1부(한일축제한마당 공식 홈페이지(<http://omatsuri.kr>) 다운로드 후 작성)

방법 이메일 접수(omatsuri2005@naver.com)

【합격자 발표】

일시 7월 20일(화) 18:00

방법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홈페이지, SNS 및 개별통보

【오리엔테이션 (1차, 2차 중 택1)】

1차 2021년 7월 23일(금) 18:30~20:0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예정)

2차 2021년 7월 24일(토) 14:00~15:3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예정)

*오리엔테이션 참석 가능한 분에 한하여 최종 선발

*2021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음.

【자원봉사자에 관한 문의 및 신청】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 한국측 운영사무국 (주)셋강나루

TEL 02-702-7724(직통) e-mail omatsuri2005@naver.com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HP & SNS】

HP www.omatsuri.kr

blog https://blog.naver.com/kj_omatsuri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kj_omatsuri/

facebook <https://www.facebook.com/kjfestivalseoul>





세계 유일의 가게에 거장이 전하는 사랑과 공생 〈후지시로 세이지: 빛과 그림자의 판타지 전〉 개최

황인혜 일본문화원 리포터(7기)

가게에(影絵, 그림자 회화)의 거장으로 알려진 후지시로 세이지(藤城清治) 전시회 〈빛과 그림자의 판타지 전(光と影のファンタジー展)〉이 6월 10일(목)부터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주한일본대사관 등의 후원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에서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지만, 올해 98세를 맞이한 거장의 작품 세계를 160점의 작품을 통해 테마별로 느껴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전시다.

그림자 회화라고도 불리는 가게에는 밑그림을 그리고 잘라 셀로판지를 붙이고, 조명을 스크린에 비추어 색깔과 그림자로 표현하는 장르의 작품을 말한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당시 청년이었던 후지시로 세이지는 초토화가 된 도쿄에서 평화를 기원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잿더미가 된 공간 속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골판지와 전구를 찾아 가게예를 만들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정전이 잦아 어둠으로 가득했던 일본에서 가게예를 만난 그는 마침내 한 줄기의 빛과 아름다움, 그리고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늘을 나는 난쟁이

후지시로가 독보적으로 이끌었던 독특한 장르의 예술인 가게에는 새까만 실루엣과 빛의 절묘함으로 만들어진 심플한 느낌의 모노크롬 작품부터 찬란한 빛의 표현으로 색채가 더해져 더욱 아름답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작품까지, 그 범위는 굉장히 넓었고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각각을 대표하는 작품 ‘하늘을 나는 난쟁이’와 ‘서유기_화형 당하는 오공’을 통해서도 곧 알 수 있다.

석양 속 사랑의 기적

그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그가 가진 감성과 단호한 직선의 날카로움에 밝고 어두운 빛의 균형, 오려 붙인 재료, 그리고 질감의 투과율이 이루는 구도를 더해 초기 작품과는 대비되는 또 다른 느낌의 가게예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석양 속 사랑의 기적’이 그 예로, 바람에 날리는 머리 카락이나 나뭇잎, 눈송이 등 배경을 구성하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요소들까지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려내어 빛과 그림자가 주는 강한 인상을 한층 두드러지게 하여

서유기, 손오공의 얼굴 1958



석양 속 사랑의 기적 2004



코스모스, 노래하다*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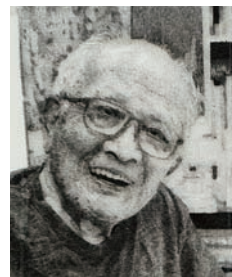
하늘을 나는 난쟁이 1953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냈다. 이러한 그의 작품을 잡지나 그림책의 삽화는 물론이고 인형극과 그림자극에도 담았다. 가게에를 바탕으로 한 인형극과 뮤지컬의 전용 극단인 모쿠바자(木馬座)를 이끌어 그가 가진 작품의 세계를 점차 넓혀갔다. 어린이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연극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모쿠바자는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의 모티브가 되었던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을 소재로 한 작품을 비롯해 일본 상업 연극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특히, ‘은하철도의 밤_캄파넬라’와 ‘울어버린 빨강 도깨비’는 1959년 초연 이후 1,000회 이상 상연하며 ‘가게에 극’의 최고봉으로 평가받으며 오늘날 후지시로의 대표작으로서 손꼽히고 있다. 또한, 모쿠바자 시절에 후지시로는 장난기가 많은 커다란 눈의 개구리 캐릭터, 캐로용(ケロヨン)을 탄생시켜 과감한 연출의 연극을 선보였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던 그의 도전은 현재 일본 부도칸(武道館)에서 개최되는 공연 양식과 어린이용 공연의 뿌리가 되어 연극 흥행 세계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지시로 세이지

작가 후지시로는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내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 여기며 혼신을 다해 작업하고 있다. 수많은 작품 가운데 ‘잠자는 숲’은 한국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했다. 나는 한국을 잘 알고 싶고, 한국을 더



후지시로 세이지의 초상. 김용진 작

가 가까이하고 싶다.”라고 전했으며, 특히 이번 한국 전시를 위해 고령임에도 작품 제작에 하루 7시간 이상의 열정을 쏟았다. 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후지시로 세이지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찾은 희망을 빛과 그림자의 대비로 절묘하게 표현해낸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과 분산되는 부분을 종이로 정확하게 표현해내어 그야말로 한 장의 사진을 보는 듯했다. 또한, 모노크롬 작품과 훗날 색채가 더해진 작품을 함께 두고 보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후지시로 선생이 전하고자 했던 사랑과 희망의 크기는 점점 커졌다는 사실과 함께, 작품과 가게에 장르를 향한 그의 애정까지도 전해져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회 관람이 되었다. 사랑과 공생을 테마로 한 국내 최초의 전시회, ‘후지시로 세이지 : 빛과 그림자의 판타지’전은 올해 10월 12일(화)까지 개최된다. 부디 많은 사람이 이 전시회를 통해 작품에서 드러나는 급변하던 1960~1970년대 일본의 변화 속에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사랑과 공생의 메시지, 그리고 그가 평생을 추구해온 가게에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장하고도 먼 이혼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심정지들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두 번째 맞이하는 봄.

코로나가 끝날 날만
기다렸는데 감기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니!
올여름도 마스크는
못 벗겠구나...



코로나에 지쳐
긴급 재난 문자에도
무대진 요즘.

갑작스러운 코로나 기습에 당황했던 작년과 달리, 우리는
어느새 코로나에 적응하며 잃어버린 일상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었다.

작년 봄



여기는
동물의 왕국

피할 수 없다면
즐거라! 패션의
완성은 마스크!



실내생활이 길어지면서 생긴 신조어와
너투버들의 맹활약.

어찌나
생동감이 있는지
레몬을 보는데 입안에
침이 막 고이네!

랜선여행

하하하



줌수업 등...

여행이 주는 행복
또다시 느껴 보고
싶다.

무聊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나를 찾아온 의문의 선물상자.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나! 이른바 분신 인형.

자자잔

여행
내게도~

EMS



일본의 '올레 소물리에' 미키 언니는 코로나 극복의 염원을 담아 올레 친구들의
분신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그 인형들은 규슈의 올레길을 걷기
시작했다.



언니의 이런 활동은 제주의 '인형 투어'와 이어져
EBS 방송에도 소개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올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일본의 관광객
대신 그분들의 인형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음~

제주공항

월경!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안내를 맡은 제주 풍당 패밀리 3총사.

*풍당 패밀리-한라봉과 해녀, 돌하르방을 이미지화한 제주애(愛) 캐릭터.

인형들은 2박 3일 동안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고 맛집을 다니다
일본으로 돌아갔다. 언니의 인형 또한 그랬다.



핑도
EMS요

ただいま~
여행 잘
다녀왔어요~

음~
제주도의 냄새!
여행 재밌었어?

EMS 상자 안에는
기념품과 함께
제주의 추억이
한가득.

제주도
가이드북

*올레소물리에 오카베 미키(岡部美貴)씨.

좋아! 나도
인형을 여행
시킬 테야!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본 안팎으로 퍼져
있는 언니의 인형이 다함께 모이는 그날,
동창회를 꾸며며 오늘도 나는 인형과 함께
집을 나선다.

우리 올레 친구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레이(BOY)군. 레이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올레 이모들이~

✉ maidookini@naver.com